

미래파, 부정과 거부의 정신

1909년 2월, 프랑스의 유력한 일간지 「피가로」 지를 받아 본 파리의 보수적인 시민들은 아연실색했다. 이탈리아 시인 필리포 마리네티가 게재한 「미래주의 선언」 때문이었다. 신문에 실린 마리네티의 글은 일체의 전통과 규범, 특히 아카데미 예술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폭력과 모욕의 정당화, 무례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체의 예술적 전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실제적인 최초의 시도로 평가되는 「미래주의」가 세상을 향해 포문을 연 순간이었다.

선언문은 반전통, 반규범, 반도덕, 반교회, 반종교, 반아카데미즘, 반미학 등 안티(틀화된 가치관을 거부하는 태도)를 정당화하고, 과거에 속한 일체의 가치관의 정통성을 의문시하는 한편, 무정부주의와 절대 자유, 전쟁과 폭력, 혁명과 투쟁, 도래할 미래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처럼 미래주의로부터 촉발된 예술에서의 안티 개념은 연이은 다다이즘에서 무조건적인 파괴, 맹목적인 파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돌이켜 보면, 미래주의의 안티 개념은 무모하리만치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부정의 정신성을 잉태하는 자궁의 역할을 했다.

현실에 대한 예술가의 표현은 대략 현실을 향하는 입장과 현실로부터 일정한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태도, 둘 중 하나로 귀결된다. 전자를 리얼리즘 미학으로, 후자를 이상주의 미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미래주의 예술가들은 동시대적 삶의 직접적인 표현을 지향하며, 특히 동시대를 기계와 기술이 지배하는 새로운 문명 시대의 도래로 간주하고, 그런 만큼 과거에 속한 일체의 권위를 의문시한다. 따라서 종래 예술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던 조화, 비례, 통일, 고상한 취미(그랜드매너), 균형, 숭고, 우미(우아미)의 가치를 기계의 동세가 보여주는 정확성, 역동성, 속도감, 기관차가 내는 귀가 멍멍한 소리와 소음의 표현으로 대체한다. 기계의 역동성은 그 자체로 남성적인 힘을 상징하며, 따라서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인 여성(성)은 거부된다.

미래주의 예술가들의 현실에 대한 참여와 혁명 의식은 보수와 전통에 대한 단순한 부정을 넘어, 보수와 전통을 일소할 수 있는 구실로서 전쟁을 미

화하고, 결과적으로 군국주의의 정체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더불어 국수주의와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미래주의 예술가들은 오랫동안 파시즘의 혐의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사실은 미래주의 예술가들의 논쟁적이고 선동적인 성격과 함께 정치적 경향성에 대해서 말해준다. 집단적인 운동과 프로그램, 빈번한 선언문의 발표와 행동강령의 제시 등, 전례가 없는, 전적으로 미래주의 예술가들에 의해서 처음 시도된 자기표현의 형식들이 이후 예술과 정치의 상관성 및 담론에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래주의 예술가들은 속도감과 운동성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회화와 조각 고유의 공간적 조건에다 시간의 요소를 도입한다(원래 조형예술은 특정한 가시적 공간을 점유하는 공간예술로, 음악과 무용 등 공연예술이 시간예술로 알려져 왔다). 미래주의 예술가들의 시간에 대한 관념은 동시성 개념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를테면, 가동 중인 기계 혹은 달리는 말을 마치 고속 촬영한 연속 필름을 보는 듯 모티프의 연이은 동작을 겹쳐지게 표현했다(마이브리지의 연속촬영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예술의 소재(재료)에 대해서도 종래의 관습적인 틀을 넘어선다. 이를테면 회화와 캔버스, 조각과 대리석 혹은 브론즈라는 소재에 대한 틀화된 관습을 넘어, 철과 금속조각, 거울과 유리, 종이와 마분지, 시멘트와 콘크리트, 말총과 형견, 기호와 활자, 심지어 전기광선(빛의 다이내미즘을 표현)까지 수용된다. 기법적으로는 콜라주(인쇄물과 같은 평면 오브제를 화면에 붙이는)와 아상블라주(일상에서 채집한 잡동사니를 쌓거나 늘어트려서 보여 주는)가 미래주의 예술가들의 간단없는 형식실험을 반영하고 있다.